

4

가정예배 · 구역예배

충현의 만나 2009

가정예배

시편 사도행전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4

2009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시편 · 사도행전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 ①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마 16:24)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롬 1:1)이 되게 하소서.
-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 ③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뜻(빌 2:2)이 되어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마 16:18)로 세워 주소서.
- ④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14)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천국일꾼이 양성(딤후 4:6)되게 하소서.
- ⑤ 1·1·1 전도(딤후 1:3)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 ⑥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 선교(행 1:8)에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벧전 2:9)가 되게 하소서.
- ⑦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12)로 믿게 하시고, 예루살렘 찬양대(눅 2:36)를 통하여 금요 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 ⑧ 충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및 납골시설 건립이 은혜 중에 진행(골 2:15)되게 하소서.
- ⑨ 사순절기(2.25~4.11)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승리의 십자가!

인간의 종말은 영원한 형벌과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판 죄의 종말은 진실로 끔찍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러 내린
그리스도의 보혈은 온 땅을 덮었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온통 붉게 물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음성이 내려졌습니다.

일어나라! 올라가자!
고난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들의 구원을 확증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지체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일어나 예수님께로 달려 나아가십시오.
바로 오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승리의 십자가를 전하십시오.

2009년 4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가정예배 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낭독	
기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본문을 봉독

가정예배

(매일성경묵상)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교만하고 포악한 자들의 공격에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호소합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형편을 아뢰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다음으로 간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며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2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1절).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3절).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4절). 여기서 다윗이 간구하는 그 간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5절).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인자하심이 넉넉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니”라고 고백하며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달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신들 중에 하나님과 같은 자 없고 주와 같이 행할 수 있는 자가 없으며(8절). 그렇기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고백합니다(10절). 우리는 무엇에 근거하여 기도합니까? 상황이나 환경이나 욕심이 아닌 인자와 긍휼과 은혜와 진실의 하나님, 그 성품에 근거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시 86:10)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소서. ② 천하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마 16:24)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걷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롬 1:1)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장차 나타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노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결과, 유대를 초월하여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이것은 교회시대를 통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 (3절)은 일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신약시대의 교회 또는 종말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본문을 보면 먼저, 이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기지(터)가 성산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성이 영광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은 과연 누구로 말미암아 세워지며, 누구를 통하여 건설되는 것입니까? 바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4절에 나오는 '라합'은 '애굽'을 가리키는데, 4~6절 말씀을 보면 믿는 모든 이방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에서도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이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 참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 10:13). 매순간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방패와 상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을 붙들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 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시 87:7)

기도 제목 ①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고전 2:2)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찬양대의 지휘자였던 '헤만'의 시로 시편 중 가장 애절한 비탄시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늘 고난이 따릅니다. 육체적인 고통(3~4절), 신앙적인 고통(5~7절), 사회적인 고통(8절) 등으로 특별히 사회적인 고통을 8절과 18절에서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 오나...”(8절).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18절). 나의 아는 자가 나를 멀리 떠나며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내게서 멀리 떠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나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부모와 형제가, 친구들이, 직장동료들이, 나의 친지들이 나를 외면하고 떠나며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요 15:19).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주님도 이와 같은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 고난과 핍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마 5:11~12).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시 88:3)

기도 제목 ① 고난과 핍박 중에도 십자가의 은총을 기억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②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하여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지휘자 '여두둔' 과 동일 인물로 추측되는 '에단' 의 시로 '애굽 왕 시삭의 유다 침공사건(왕상 14:15~18 ; 대하 12:1~12)이 배경입니다. 과거 다윗에게 주신 언약(삼하 7:8~16)과 모순되는 듯한 현재의 환난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며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윗 왕가와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실,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떠나서 범죄 한 이상 그 언약은 파기된 것과 다름 없음에도 시인이 다윗 언약에 근거하여 민족의 구원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장차 도래할 종말의 때까지 중단 없이 전개될 구속사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라고 언약하셨습니다(왕상 9:5). 비록 다윗 가문에 속한 자들이 타락하였으나 분열 왕국시대는 물론 바벨론 포로기와 회복기 그리고 중간기까지도 그 언약을 폐지하지 아니하시고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언약을 지켜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천국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관성과 연속성!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언약을 받은 우리의 생명이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시 89:34)

기도 제목 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뜻(빌 2:2)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영원자 하나님 앞에 선, 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겸허한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연약함을 대비시킴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인간이 참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2절). 하나님은 ‘영원자’ 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천년은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며(4절) 사람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3절).

인간은 피조물이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피었다 지는 풀과 같습니다(5~6절).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순식간에 다하였다고, 신속히 날아간다고 말합니다(8~9절).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12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소망을 두며 이 땅에 사는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 또한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17절). 은총을 입은 성도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시 90:8)

기도 제목 ①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소서. ② 구원의 은총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종려주일이 되게 하시고 충현의 모든 가족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여호와와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자의 안전함과 보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노래한 시로서 하나님의 현재적 임재와 보호를 보다 현장감 있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시라 말하며 지존자로 거처를 삼으면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9~10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11절). 그 사자들이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12절).

더 나아가 오히려 우리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13절). 그렇습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혈육이나 나의 지혜와 능력을 나의 거처와 피난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와 거처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거처로 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더 나아가 악한 세력을 무찌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14절).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막 12:30).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호 6:3).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고 높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안전한 쉼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시 91:9)

기도 제목 ① 겸손히 죄를 회개하며 십자가의 그늘 밑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온전히 동참하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악인이 도처에 횡행하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좌절치 않고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보며 기이한 섭리를 찬양하는 시로서 의인과 악인의 삶이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다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5절).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6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둔하고 무지하여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그 뜻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정녕 악인이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가 다 흥왕할지라도 결국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7절).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다 흠으실 것입니다(9절).

반면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뿌을 들소의 풀같이 높이시며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10절). 이처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선악 간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하시며 불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15절). 그렇습니다. 유한하고 죄인인 우리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예로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시 92:5)

기도 제목 ① 주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소서.
②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참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못 성도들의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가지신 면모 즉, 만물 위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만물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나오는 “큰 물”은 이방 강대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3절). 이를 능히 제어하시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과 위엄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소리치며 높이 파도치는 큰 물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으나 이 역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시간적으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공간적으로는 우주 만물에 미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주적 찬양은 지극히 합당한 것입니다. 특별히 구속사적 관점에서 구속사의 주체이신 절대주권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하는 바른 태도는 바로 ‘찬양’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소망에서 우러나오는 벅찬 감격을 가지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로다.”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시 93:5)

기도 제목 ①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며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모든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14)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천국일꾼이 양성(딤후 4:6)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악의 세력이 관영한 민족적 비극 상황을 개탄하면서도 원수 갚음도 여호와께 속한 것임(신 32:35 : 롬 12:19)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징벌의 근거로 그들의 악행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가증스런 도전임을 고발하고 악인의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한 답변과 선악 간에 도래할 하나님의 필연적인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자신은 다만 말씀대로 살아갈 것임을 고백합니다.

악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7절). 그러나 이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러한 악인들을 향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9절).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악이 넘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은 버리지 아니하시며 외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14절). 그리고 악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16~17절). 그러므로 모든 것을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악인들로 인하여 우리들이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고 이로 인해 번뇌하게 되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19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만이 우리의 큰 위안입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시 94:19)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이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석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유지하시는 전능자이시며 동시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구원자이시므로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을 향해 과거의 비참한 역사를 거울 삼아서 외식으로 찬양하지 말고 진실하게 할 것을 권고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으로 성전 예배 중에 사용하기 위해 지어진 노래입니다.

1~7절은 찬송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회중이 부르는 노래로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이유가 기록되어 있으며, 8~11절은 예배 인도자의 독창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면서 바른 예배 자세를 갖추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로서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와 모든 신위에 크신 왕으로서 존귀와 위엄이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우상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고 해서 그 실재를 인정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모든 이방인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대상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며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에 대한 지배권 또한 갖고 계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잊습니다. 곧 세상을 살아가는 방편으로 자신의 의지를 너무 내세워, 하나님의 주권을 경홀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시 95:2)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소서, ② 진정한 회개가 있는 성금요일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온전히 기념하는 성찬식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 신들보다도 위대하시며, 의와 진리로 우주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자연의 요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삽에게 지어 준 역대상 16:8~36의 일부분인 23~33절과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학자들은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주 반복되는 어법과 문체가 후기 히브리인들의 전형적인 방식이므로 다윗이 저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포로 이후에 성전이 재봉헌 될 무렵 여호와와 통치를 찬양하는 어떤 시인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높으신 하나님께 대한 우주적 찬양을 선언함과(1~3절), 하나님의 엄위하심(4~6절), 만민의 찬양 선언(7~9절), 하나님의 역할(10~13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실행 조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예물을 드리는 것과, 성결한 생활로써 하나님께 봉사하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에 합당하게 드러지는 순종의 구체적인 표현을 원하시는데, 특별히 그것은 성전 내에서 예배 시 찬양과 제물을 드리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든 생활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구하고 계심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로부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배합니까?

“만국의 족속들이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시 96:7)

기도 제목 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②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신정(神政)에 대해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편 96편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심판에 대한 즐거움의 분위기를 주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엄위로우신 심판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의 분위기를 주는 시입니다. 시의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의 미래를 조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메시아에 관련된 천국의 장래를 예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본문이 내 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 님의 나타나심'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맥락에서 내용을 특징적으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 십을 선언함과(1~2절), 하나님의 나타나심(3~6절),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 심의 결과들(7~9절),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의인의 모습(10~12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의 위엄을 묘사한 후 성도들이 지녀야 할 신앙 자세에 대하여 결론적인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에 대하여 성실히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자신들이 누리는 영적 기쁨으로 인해 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상에 재림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고, 종국적인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이다”(시 97:1)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②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충만한 부활주일 특별찬양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광의 찬송이 됩니다(1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한결같은 사랑은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을 끝날까지 지키시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사역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은 마침내 모든 피조물들의 기쁨의 노래가 됩니다(3~4절). 이 큰 구원을 깨닫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늘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총을 입은 사람들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큰 구원을 온 땅끝까지 선포하여야 합니다(4절). 마침내 열방은 주님의 거룩하심과 다스리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시 22:27).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으며(신 4:37) 애굽의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출 12:29~42). 바벨론 포로에서도 돌이키시며 회복시키셨습니다(사 27:12). 그분의 놀라운 구속경륜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을 받게 하시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룩한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롬 8:32).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사랑과 그 놀라운 구원은 이제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한 찬송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마다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붙잡는 매일매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시 98:3)

기도 제목 ①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영원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②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행 1:8)에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벧전 2:9)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며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찬송 받으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1절). 공의를 영원히 굳게 세우시며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6~8절).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믿는 사람들의 참된 행복이 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찬송이 되며 우리들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항상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높이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여야 합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거룩하신 영광의 왕이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주와 우주, 별들과 별들을 넘어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평강의 왕이십니다(4절). 그는 세상의 빛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영원한 구원이 되십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며 영생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계 19:6). 이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찬송이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들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시 99:1)

기도 제목 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피택받은 장로후보자 · 안수집사후보자 · 권사후보자가 6개월간의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즐거움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신앙고백입니다(1~2절). 여호와께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는 오직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며 그분이 돌보시는 양들입니다(3절). 찬송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가슴으로 부르는 영혼의 노래입니다. 변함없는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며 우리가 피곤하여 넘어질 때 붙드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야 합니다.

“그 문에 들어가며...그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찬송함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4절).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유 :24).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함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은혜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신령한 예배는 신앙고백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누리는 복입니다.

“여호와께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 100:5)

기도 제목 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교제하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교회주변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기뻐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본받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려는 다윗의 신앙고백과 결단은 우리에게도 전을 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아름다운 믿음은 주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모습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1절). 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려는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강력한 임재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강함을 더욱 의지하려는 다윗의 겸손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사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견고하게 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은 우리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듯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사람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 영혼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나의 인생을 맡기며 십자가를 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헛된 욕망을 좇을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시 101:1)

기도 제목 ① 세상의 헛된 욕망을 버리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9)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정결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곤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회복의 때를 바라보는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시 18:3). 어떤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더욱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는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1~2절).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비참하고 쓰라린 고통에서 구원하시며 빈궁한 사람들과 갇힌 사람들의 탄식과 기도 응답하시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믿고 의지하며 순종해야 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17절).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괴로움과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원수들은 그들을 조롱하였으며 그들의 인생은 석양의 그림자 같았고, 생명의 기운이 마치 풀처럼 시들어 갈 때 눈물은 그들의 음식이 되었습니다(8~11절). 극심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진정으로 죄를 자복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택하신 주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마 26:28).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며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곤고한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시 102:17)

기도 제목 ① 사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 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다윗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1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그의 결심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게 합니다. 끝없는 사랑과 자비로 보호하시며 높이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 받으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4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풍성한 은혜로 나타나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도록 합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도무지 측량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구별 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마음에 넘치는 평화가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다(1~3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절정에 이르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는 참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풍성한 은혜를 힘입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인자하심을 찬송하여야 합니다(대상 16:33). 찬송은 구원 받은 백성들의 가장 큰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베푸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시 103:17)

- 기도 제목** ①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에 모든 남전도회원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은혜를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줍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위엄을 봅니다.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창조질서의 오묘함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기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룩한 찬송을 통하여 창조사역의 역동성과 함께 피조물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과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천지창조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력한 주권은 찬송의 제목이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시 147:1).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창조의 신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과 역사와 피조물의 오묘함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24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30절).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다윗의 고백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고백이 되어야 합니다(33절).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구원하심을 선포하여야 합니다(엡 5:19).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섭리를 찬송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피조물 하나하나에 쏟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보살핌과 사랑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실성을 나타내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고 있습니다(33~35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시 104:24)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구원의 은총을 증언하게 하소서. ② 교사양성부 및 찬양대원양성부 과정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이 양성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택하신 백성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신실하신 분이시며 주님의 약속은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참 능력이 됩니다(4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때로부터 택하신 이스라엘이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민족형성의 과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 언약과 그 성취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있습니다(9~11절).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풍성한 축복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셨던 모든 역사는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42절).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또는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셨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죄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더욱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골 4:20).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약속과 생명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늘 찬송하고! 찬송하여야 합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 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시 105:8)

기도 제목 ①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② 총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된 수많은 죄악과 그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진노 가운데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귀하고 아름답습니다(6~11절).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찬송이 되었습니다(롬 9:5).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 소망이 되고 기쁨의 노래가 되어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1절).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이스라엘의 영원한 찬송은 이스라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폐역한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사랑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구속하신 은혜는 우리의 영원한 찬송이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극한 관심과 배려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때때로 곤고한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며 악인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죄악 가운데에서도 백한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45~46절). 참된 위로와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미워하며 불법과 불의에서 떠나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죄를 회개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해야 합니다. 불순종의 역사는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왔으나 회개에는 사죄의 은총이 넘칩니다.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시 106:48)

기도 제목 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② 오직 복음으로만 천국일꾼이 양성(딤후 4:6)되게 하시고 교사들이 복음위에 더욱 견고히 서도록 은혜를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참된 도움이 되십니다. 바벨론 포로시대의 절망과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극심하였습니다(10절). 그러나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역사적 사건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주권적인 능력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참 의지해야 할 진정한 도움입니다(15절).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하시며 항상 나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십니다.

광야와 바다로 비유되는 역경 가운데에서도 영원한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진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길을 잃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당할 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을 드리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시 107:8)

기도 제목 ①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만민을 주소서. ② 1·1·1 전도(딤후 1:3)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스데반의 순교와 흠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로 이방인의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이방인의 땅에 사는 유대인에게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브로와 구레네에 사는 사람들은 안디옥까지 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전도의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선교사 바나바를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22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나바로 인하여 큰 무리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24절).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의 안디옥 선교사역을 통해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26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능력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천국일꾼이 양성되어 복음의 빛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자원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는 인간의 지식과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행 1:8). 그리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행 11:24)

기도 제목 ①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피택받은 일꾼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1~2절). 베드로도 잡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심해질수록 성도의 믿음과 기도는 더 간절해집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5절). 하나님은 믿음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렐 33:3). 하나님은 겸손하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옥에서 구출됩니다.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6~7절).

이처럼 하나님은 복음의 일꾼들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행 26:22). 그러므로 복음전파자에게는 고난도 유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증인들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행 20:24). 왜냐하면 그 복음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버리기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증인이 됩시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행 12:5)

기도 제목 ①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② 금요찬양집회에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바울의 1차 선교가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4절). 본문은 선교사의 파송이 ‘성령께서 보내신 일’로 기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지만 사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가 선교의 가장 중요한 이유요 능력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합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5절). 교회의 선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도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셨습니다(마 4장). 선교는 영적 전쟁터에서 행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위한 준비부터 마칠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 1:14).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교의 무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바로 십자가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교 현장에서는 자신을 부인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구원 얻은 자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행 13:23)

기도 제목 ① 성령님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총현의 단기선교가 되게 하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헌신이 있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선교는 사탄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는 현장마다 사탄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영의 역사가 선교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2~3절).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22절). 세상은 이미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엡 2:1~3).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워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싫어하고 배척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이 듣거나 배척하거나 관계없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복음증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눅 1:79). 초대교회에는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한 주님의 신실한 종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크면 클수록 복음전파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주위 상황이나 자신의 처지를 보지 않고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 피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말세지말(末世之末)이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복음전파에 헌신할 때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합시다.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앓달리아로 내려가서”(행 14:25)

기도 제목 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땅 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②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한 제2차 학습 및 세례식이 되게 하시고 학습 세례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전도여행 중에 할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1절). 이 문제를 두고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전도여행 중이었던 바울과 바나바도 여기에 참석하였습니다(2절). 회의 결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11절). 다만 이방인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권면하도록 하였습니다(20절).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것은 선행이나 외적 표식이 아닌 ‘오직 믿음’이라는 핵심 교리가 공적으로 천명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에 인간의 것을 더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있습니다. 할례나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으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행 4:12).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입니다.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 우리의 윤리, 우리의 지식 등은 구원을 얻는 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행 15:11)

기도 제목 ①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소서. ② 위임 목사님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행 15:36). 여기서 바울은 선교 사역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 중의 하나인 디모데를 얻게 됩니다. 누기는 디모데의 인간됨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향후 그가 맡게 될 사역의 중요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동역함으로써 바울의 선교 여행은 더욱 활력을 띠게 되었습니다. 한편 바울은 이번 선교여행에서 아시아를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주의 영'의 지시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6~7절).

바울은 행선지를 바꾸어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이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9~10절).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은 전도사역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 16:9). 인생의 여러 일로 인해 분주하거나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계획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매순간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 가운데 십자가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행 16:7)

기도 제목 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걷게 하소서. ② 세움받은 위원회의 모든 일꾼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의 소동을 피하여 베뢰아로 가게 되었습니다(10절). 베뢰아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는 베뢰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11절). 여기에서 ‘상고하다’는 말은 ‘탐구하다’, ‘조사하다’, ‘판단하다’, ‘분별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전체적인 의미는 주로 재판, 판결을 정의롭게(편견 없이) 하기 위하여 철저히 따지고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베뢰아 교인들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베뢰아 교인들처럼 우리 역시 성경을 늘 읽고 연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 3:15). 말씀 안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 그 자체가 되시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 대화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을 늘 상고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행 17:11)

기도 제목 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고 말씀 앞에서 모든 교만과 자존심을 버리게 하소서. ② 수요성경공부를 통하여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도록 은혜를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아덴에서의 전도를 마치고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절). 2차 전도여행의 말기에 해당하는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우상 숭배와 물질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할 즈음 여러모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전 2:3).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의 합류와(5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동역자의 도움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2~4절).

이렇게 바울의 주변에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에게는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갈 4:15).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는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꼭 선교의 현장이 아니더라도 일상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뜻을 같이하여 함께 나아갈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주위에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동역자들이 없다면 그것을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주시듯이 우리 역시 이웃들에게 동역자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행 18:26)

기도 제목 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구역예배

4월 구역교재 초점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은총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은총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동시에 영광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난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열광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환호하던 군중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합니다. 이와 같이 완악한 인간들을 위한 십자가의 속량은 진실로 은총입니다!

예수님께 맡겨진 구원사역을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무슨 일이든 담대히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기 원합니다.

금요모임	본 문	제 목	초 점
0403	마태복음 21:1~11	종려주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자
0410	요한복음 20:11~18	부활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전하자
0417	요한복음 20:19~28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자
0424	창세기 35:1~5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자

1. 구역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교재 전개

도입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소요시간 10분

전개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결론 및 적용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1과 종려주일

| 초 점 |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자

| 찬 송 |

찬송가 140장 왕 되신 우리 주께
충현찬양곡집 종려나무

| 본 문 | 마태복음 21:1~1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 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¹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¹¹⁾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 주간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겸손히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1km쯤 떨어져 있는 감람산의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제자 둘을 보내어 나귀를 데려오게 하셨습니다.

※ 제자들이 나귀를 예수님께로 끌어오게 된 과정을 설명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전날 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와 두 자매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저녁식사 때 마르다가 음식을 대접하는 동안 나사로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요 12:3).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주님의 죽음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나의 준비는 무엇인가요?

왕 중의 왕께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임을 나타내시기 위해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속 9:9 /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_____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리

고대의 왕들은 자신의 왕국에 입성할 때 매우 호화로운 입성식을 거행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눅 9:58

주님이 입으신 옷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자들은 평범한 백성이었습니다. 이 입성식의 유일한 장관은 육체를 입으신 왕 중의 왕의 모습, 곧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고후 8:9

※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군중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았다

많은 군중들이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마 21:9 / 호산나 □□의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 하더라

※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군중들은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그들은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 마태복음 11:28~29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 봅시다.

예수님은 평화로 이 땅을 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엡 1:3

엡 2:13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좌를 약속했던 다윗 왕가의 축복받은 계보 안에 합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 21:10 /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_____
_____ 하거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의 위대한 종교지도자들과 성전을 출입하던 경건한 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 특별한 순간에 대해 예언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 21:11

본디오 빌라도까지 “보라 너희 왕이로다.”(요 19:14)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 시편 2:4~6, 72:17~19 말씀을 읽고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시편 2:4~6	시편 72:17~19

※ 아래의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 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로 믿는가? _____
- ② 세상의 성공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_____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무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혼구원이 아닌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구원을 원했습니다. 군중이 찾고 있었던 것은 나귀를 타고 오는 임금이 아니라 정치적인 정복자였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했지만 교만으로 영적 눈이 가려져 있었던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약 4:6

※ 예수님의 겸손함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으로 맞이합니까? 진실로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환영하십니까? 자존심을 버리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영원히 머무를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겸손히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해 가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2.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4:6~10)에 참석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3. 구역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2과 부활절

| 초 점 |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전하자

| 찬 송 |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 본 문 | 요한복음 20:11~18

¹¹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¹²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¹⁷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¹⁸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날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날입니다.

※ 부활의 소식이 나에게 기쁨이며 능력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이른 시각에 무덤을 찾아갔다가 그리스도의 무덤을 막아두었던 큰 돌이 굴러가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란 그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 소식을 전했으며 몹시 슬퍼했습니다. 마리아는 울면서 계속 무덤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울면서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던 곳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 20:13

천사들은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승리의 기쁨을 누릴 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은총과 기쁨이 있는 날 마리아처럼 울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 보십시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았다고 생각했다

마리아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기에 울고 있었습니다.

요 20:1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마리아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지 않았습니다.

막 10:33~34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빈 무덤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명확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적들의 힘과 권세가 예수님보다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우리의 초점이 '세상'과 '심자가'에 있을 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차이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마리아는 외로움을 느꼈다

마리아는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요 20:11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시신 곁에서라도 위로를 얻으려고 했지만 이제 그 시신마저 없어졌습니다. 그녀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외로웠던 근본적인 원인은 그릇된 믿음에 있었습니다.

요 20:9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신자들과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 히브리서 13:5과 마태복음 28:18~20 말씀이 나에게 주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에는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롬 8:38~39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눅 8:2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일곱 귀신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그녀를 치유해 주셨고 마리아는 살아갈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주님의 목적에 대해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마리아와 함께 계셨습니다.

요 20:13~15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야기 하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제서야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요 20:16~18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어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울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와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주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 주셨듯이 주님은 또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롬 1:4

벧전 1:3

우리는 염려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눈물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 주십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전하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2. 매순간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성령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가정과 이웃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소서

3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 초점 |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자

| 찬송 |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1장 아 내 맘속에

| 본문 | 요한복음 20:19~28

⁽¹⁹⁾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²⁰⁾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 ⁽²⁷⁾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²⁸⁾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에덴동산에서 인류의 타락 이후 사람들은 계속해서 평안을 갈구해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환경 속에서 평안을 구하지만 결코 찾지 못합니다.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평안의 원천이십니다!

※ 이사야 9:6, 48:22 말씀과 누가복음 2:14, 요한복음 16:33에서 공통으로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 참 평안의 원천이 예수님이라고 느꼈던 구체적인 경험을 나누어 보십시오.

부활하신 첫날 저녁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두 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과 근심, 외로움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평강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 부활절 후 가장 많이 달라진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은 모든 이해를 초월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두려울 때 평안을 누린다

두려울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 20:19 /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_____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은 유대관원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 날은 부활절, 곧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무덤의
돌을 옮겨놓았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
셨기 때문입니다.

요 20:19 / ...예수께서 □□ 가운데 □□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

※ 두려움 속에서 평강을 누렸던 구체적인 경험을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님은 부활하시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
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
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빌 4:7

근심이 있을 때 평안을 누린다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 20:20~21 /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_____
_____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_____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축복해주신
후에도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평강을 주십니다. 그
제서야 제자들은 안심하였습니다.

요 20:22~23 /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_____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벧전 3:14~15

제자들은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을
전했으며 도마에게도 말했습니다(요 20:25). 그러나 도마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의심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 주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로울 때 평안을 누린다

혼자라고 느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 20:26~27 / _____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_____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혼자였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마는 불신 속에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도마의 외로움을 아신 예수님은 그를 친히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실로 믿게 되었습니다.

요 20:28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신자들이 의심과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가 완고하고 어떤 도움도 필요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모든 외로움을 몰아냅니다.

눅 1:79

※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가장 강하게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삼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참 평안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 외로움에 힘든 나날이 계속되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면 오히려 그 순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히 12:11 /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와 □□의 열매를 맺느니라

살후 3:16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돈이나 건강, 가정 문제 등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근심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고 외롭고 친구 하나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십자가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2. 그리스도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4과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자

| 초점 |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자

| 찬송 |

찬송가 525장 돌아와 돌아와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 본문 | 창세기 35:1~5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

⁽⁴⁾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겔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⁵⁾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은 고향 가나안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는 길에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확인시켜주시며 지금 그가 서 있는 땅을 그에게 주고 그를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곳을 '벧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창 28:13~15

창 28:19

벧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삼촌 집에 머물면서 일하고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은 후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은 벧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겜에 거주하고 있었을 때 또 다시 곤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 연속되는 시련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웠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그 기간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나누어 보십시오.

위기와 고통의 순간에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벤엘로 올라가라

곤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벤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 35:1

하나님은 방황하는 그를 향해 돌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헌신의 장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께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 야곱에게 벤엘은 어떤 곳이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헌신의 장소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열고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 로마서 1:1 말씀을 읽은 뒤 암송해 보십시오.

삶을 정결하게 하라

곤경에 빠졌을 때 야곱은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 벨엘로 돌아가기 전 야곱이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의 삶의 방식을 돌아보고 그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 합당하지 않은 계획과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 현재 내가 '영적 벨엘'로 돌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을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곤경에 빠졌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창 35:3 / 우리가 일어나 벨엘로 올라가자 _____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_____
하노라 하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는 자기연민과 죄책감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습니다.

※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며 믿음의 길을 걷습니까?
실제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나누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매순간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발을 맞추어 걸으십시오.

※ 마태복음 16:24 말씀을 읽고, 반드시 함께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라

곤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창 35:4~5 /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_____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_____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행동들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베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벧전 3:18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막을 수 있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 주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은총을 나누어 보십시오.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신실하게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욕심의 욕심의 따라 행하였지만 그가 회개하며 돌아올 때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은총이었습니다. 이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은총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롬 8:1~2

고전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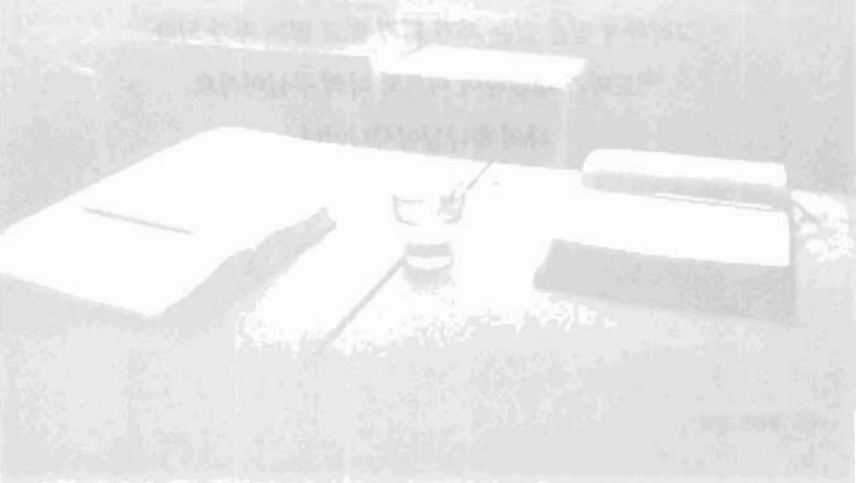
벤엘로 가십시오. 자신의 헛된 욕망들과 우상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으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며 영원한 세계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세상에 속한 헛된 욕심과 우상을 버리게 하소서
2. 죄인들을 부르시는 은총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은총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교재’ 중
‘제3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¹⁹⁾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²⁰⁾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
⁽²⁷⁾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²⁸⁾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요한복음 20:19~28)

에덴동산에서 인류의 타락 이후 사람들은 계속해서 평안을 갈구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죄로 인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괴롭고 때로는 파괴적인 갈등과 싸움, 경쟁, 불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사 48:22). 주의 날이 임할 때 악인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살전 5:3).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환경 속에서 평안을 구하지만 결코 찾지 못합니다.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평안의 원천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사 9:6). 하늘에서 천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께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 부활하신 첫 날 저녁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두 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과 근심, 외로움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평강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은 모든 이해를 초월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두려울 때 평안을 누린다

두려울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관

원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요 20:19). 이 날은 부활절, 곧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무덤의 돌을 옮겨놓았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문이 잠겨 있었는데도 방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잠긴 문이 예수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는 닫혀 있는 어떤 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근심이 있을 때 평안을 누린다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축복해주신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주님이 죽었다는 사실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찌면 유령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을 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0~21).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빌어주셔야 했습니다. 마침내 제자들이 믿자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시며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

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요 20:22~23). 그들은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요 20:25). 그들처럼 도마 역시 실제로 주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약해져 있었던 도마는 그들의 이야기를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모든 근심을 몰아냅니다.

외로울 때 평안을 누리다

혼자라고 느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도마는 혼자였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불신 속에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문제를 이해하셨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요 20:26~27). 문들이 여전히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도마를 부르시고 자신을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 고

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요 20:28).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신자들이 의심과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십니다. 우리가 완고하고 어떤 도움도 필요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모든 외로움을 몰아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돈이나 건강, 가정 문제 등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겠고 외롭고 친구 하나 없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하나님을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코 외롭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24

충현의 만나 2009년 4월 Copyright© 2009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양재웅 유재진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